**오픈소스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례**

1. 크로미움 프로젝트(The Chromium Projects)

구글은 크롬을 공개하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크롬을 만든 오픈소스 ‘크로미움’을 공개합니다. 구글이 만든 크롬 자체는 오픈소스가 아니고, 크로미움 소스에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오페라, 삼성의 삼성 인터넷 앱,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브라우저등이 크로미움 프로젝트의 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romium.org/>

2. 스위프트(Swift)

애플에서 2014년에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오픈소스가 아니었지만, 2015년 12월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macOS와 Linux의 바이너리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소스 코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BM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Bluemix’에서도 Swift를 지원합니다.

<https://swift.org/>

3. 안드로이드(Android)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전세계 모바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이지만, 구글의 서비스(플레이스토어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스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https://www.android.com/>

해외 정부가 공개SW를 활용하는 방법

여느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공개SW 활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정부도 공공부문의 공개SW 적용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상용SW로 대표되는 미국 거대 IT 기업들의 기술 종속성에 거부감이 컸던 유럽에서 주도한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중국, 러시아 등 각 나라들의 특수성이 반영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1.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 SW에 많은 관심을 표현해왔다. 초기에 홈페이지를 공개 SW CMS(?)인 워드프레스로 개편했고, 공공부문의 공개sw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게 하며 공공에서 개발한 SW를 공공, 민간이 공유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SW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code.gov라는 사이트는 13개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공개하고 있고, 공공 웹사이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사이트들(ㅇㅁㅁㅇㄹㅁㄹㅇㄹㄴ)도 있다.

<https://www.oss.kr/oss_case/show/5cfd2626-fa42-4fea-9a5c-093a2e0ce9cf>

+ 형이 준 자료 마지막 부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전망)